



Received: 2026/05/04
Revised: 2026/05/16
Accepted: 2026/06/10
Published: 2026/06/30

***Corresponding Author:**

Seongwon Oh

Rm 6213, No.2 Building, 91 Haeyangdaehak-ro,
Mokpo-si, Jeollanam-do, 58628, Republic of Korea
Tel: +82-61-240-7123
Fax: +82-61-240-7278
E-mail: osw123@mmu.ac.kr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건조 및 시험평가 제도 및 조직을 분석하여 한국 해군을 위한 발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은 함정 획득 기간 단축을 위해 복수 조선소에 함정을 동시 발주하며, 전용 시험함을 운용하여 사용자가 신규 장비의 해상 성능을 사전 검증하고 있다. 신속한 함정 전력확보가 필요할 경우를 위해 동시 건조 방식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전용 시험함 도입 필요성을 제언한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naval construction and evaluation systems of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ROK Navy. Japan has accelerated the acquisition by simultaneously awarding contracts to multiple shipyards and using a dedicated test ship to verify new equipment early.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parallel construction and introducing a dedicated test ship to ensure rapid naval deployment in Korea.

Keywords

해상자위대(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호위함대(Fleet Escort Force), 방위장비청(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 개발대군(Maritime Warfare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and), 시험평가(Test and Evaluation)

일본 자위대 호위함 건조와 시험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Test, and Evaluation of Escort Vessels in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s

이상진¹, 박태용², 오성원^{2*}

¹충남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²국립목포해양대학교 해군사관학부 부교수

Sangjin Lee¹, Tae-Yong Park², Seongwon Oh^{2*}

¹Ph.D. candidate, Dept. of Philosophy in Military Studi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iv. of Naval Officer Science,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1. 서론

2022년 12월 일본은 국가안보정책의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하며 국가 방위력 강화를 대내외에 표방하였다. 2023년을 방위력 강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방위예산을 전년 대비 26.4%인 1.42조엔 증가한 6조 8220억엔을 책정하는 등 방위력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대만에 대한 무력 시위는 일본의 안보에 가장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 운영과 신형함정의 급속한 증가는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건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호위함(護衛艦)은 일반적인 프리깃(frigate)만이 아니라 수상함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모가미(Mogami)급 호위함 건조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27년까지 12척을 건조하고 이후 보다 대형화한 모델을 추가로 건조할 계획이다. 동일 유형의 함정을 짧은 기간 여러 척 건조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는 이례적인 호위함 건조 사례로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시도가 눈에 띈다. 선도함과 후속함을 동시에 건조하고 디지털 트윈 및 M&S를 적용한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존의 호위함 건조와는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호위함 건조와 운영을 위한 시험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함정 건조 및 시험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점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일본의 호위함 건조와 시험평가 절차

함정 건조와 시험평가의 효율적 방안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만, 대부분 미국과 유럽에 치중되어 있으며 해양강국인 일본의 함정 건조와 시험평가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평화헌법을 근간으로 무기수출을 기본적으로 제한해 왔으며 그로 인해 일본의 방위산업은 내수 위주의 특수한 영역에 남아 있었다. 따라서 관련 자료가 적을 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산업은 내수의 특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술력과 생산역량을 구비하고 있고 오랜 시간 다져온 생산 노하우도 지니고 있다. 무기체계의 대외 수출 제한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으며 최근 호주 해군에 함정을 수출하게 된 일본의 함정 건조사업은 향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이시스함 뿐만 아니라 최근 취역하고 있는 모가미급 호위함의 경우 다양한 무기체계와 신기술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짧은 기간 내에 건조하여 취역하고 있는 점은 함정 건조에 있어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일본의 함정 건조 과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평가 분야의 제도, 절차 및 노하우를 연구함으로써 한국 함정의 건조와 시험평가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은 사례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일본의 각종 법령과 규칙, 그리고 관련 조직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제한된 자료의 상황에서도 일본의 함정 건조과정과 시험평가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과정에서 나타난 시험평가 절차와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 확인하고 한국 해군에 대한 적용 방안을 도출하였다.

2.1 일본 호위함 건조 절차

일본의 방위장비에 대한 획득은 기본적으로 서두

에서 언급한 3대 문서 중 하나인 “방위력 정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2]. 방위력 정비계획에 기반하여 해상자위대와 방위장비청은 세부적으로 함정 건조를 추진하게 된다. 일본 방위성 훈령 제37호 “장비품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훈령”에서는 방위 장비 및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다[3]. 호위함의 전 수명주기의 단계는 구상 → 개발 → 양산 → 운용·유지 → 폐기 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서 초기 과정을 단계별로 알아보면 1단계 구상 및 소요 제기(해상자위대, 방위장비청), 2단계 건조 준비 및 계약(방위장비청 프로젝트 관리부), 3단계 건조 및 장비 탑재(조선소, PM 감독), 4단계 시험평가 및 인도(방위장비청 주관, 해상자위대 지원), 5단계 운용 및 사후 관리(해상자위대, 방위장비청)로 이루어진다[3]. 여기서 PM은 방위장비청 프로젝트 관리부 관리관으로 통상 대령급 자위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군무원이 임명된다.

호위함 건조는 기공(keel laying) → 진수(launch) → 의장(fitting-out) → 해상 공시(offical sea trials) → 인도(delivery) 및 취역(commissioning)으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시험평가는 조선소가 주관하는 사시와 방위장비청이 주관하는 공시로 이루어진다[4].

모가미급 호위함의 건조에 있어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년 2척씩 동시에 착공하여 22년부터 27년까지 총 12척을 단기간에 취역시키고 있다. 또한 선도함(1번함)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후속함(2번함)은 미쓰이 중공업에 동시에 발주하였다. 다만, 이와 같이 다른 조선소에 동시에 발주하는 것은 1, 2번함 이후에는 8, 9번함에만 해당하는데 이는 미쓰이 중공업의 방산부분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합병된 것에 따른 영향 때문에 계속해서 동시 발주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선도함과 양산함을 다른 조선소에 동시에 발주하는 것은 한국에서 선도함을 건조 후 시험평가를 통과한 이후 경쟁을 통해 후속함들을 발주하는 것과 대비해서 전체 시리즈 함정의 획득 기간을 상당히 짧게 한다.

2.2 일본 호위함 시험평가 절차

일본의 방위장비 연구개발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술연구 의뢰 → 기술연구 요구 → 기술연구 → 기술개발 요구 → 기술개발 → 실용시험 → 제식화 →

장비화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4]. 함정에 탑재되는 각종 장비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탑재되며 각 단계에서는 시험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 방위성의 “장비품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훈령”에서는 장비품의 개발에 있어서 시제품 성능이 설계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기술시험(技術試験), 각 자위대 등이 시제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실용시험(實用試験)으로 정의하고 있다[3]. 기술연구의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시제품을 제작하고 연구소에서 소내시험(所内試験)을 실시한다. 소내시험 평가가 완료되면 기술개발이 시작되며 함정 탑재를 위한 개발 시제품을 만들고 설계와 장착의 적합성 등을 시험 평가하게 된다.

해상자위대의 연구개발에 관한 지침(達) 18호에서는 성능시험(性能試験)은 개발하지 않고 취득 및 운용 예정인 장비 등이 요구성과 사용목적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운용시험(運用試験)은 장비계획 또는 방위구상에 있어서의 기대를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그리고 유효한 운용법을 개발하기 위한 자료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5].

능력시험(能力試験)은 신규 건조된 함정의 1번함(선도함), 동형함의 대표 함정, 또는 특별 개조된 함정에 대해 실시하는 심층적인 성능 평가다. 무장의 적합성을 직접 판정해야 할 경우에도 막료장이 지정하는 자가 이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1번함에서 심도 있는 능력시험을 거쳤다면, 후속함들은 능력시험을 생략하고 일반적인 시험 및 공시 위주로 시험평가를 진행하게 된다[6]. 이후 최종적으로 해상공시를 통해 인수에 적합한가를 평가하고 해상자위대가 인수하게 된다. 이 과정을 정리해 보면 Table 1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함정에 대한 시험평가 절차는 주관 기관과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상당히 유사하다. 여기서 기술시험, 성능시험, 실용시험 및 운용시험은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용어이며, 자위대 호위함의 시험평가의 경우 소내시험, 해상공시라고 하는 별도의 용어를 혼용한다. 또한 관측시험(官側試験)이 혼용되는데 이는 시험의 주체가 정부기관임을 의미한다. 해상공시는 해상에서 시행하는 공식적인 시험평가를 의미하며 조선소가 주관하는 사내시험 즉 사측시험과 방위장비청과 해상자위대 개발대군이 주관하는 관

Table 1. Japanese test and evaluation protocol

Category	Research & Development	Procurement
Concept study (構想研究)	Technical trials (技術試験 ¹⁾)	Procurement review (購入検討)
Definitive study (確定研究)	Practical trials (實用試験) Operational evaluation (運用試験)	Performance trial (性能試験)
Construction phase (建造段階)	Capability trials (能力試験) Official Sea Trials (海上公試)	
	Delivery (引渡)	
Force integration (戦力化) Mission assignment (任務附與)	Commissioning training (就役訓練) Equipping certification (裝備認定試験)	

Note 1) Technical and capability trials for follow-on ships may be waived or certain other items may be simplified or waived based on lead-ship performance.

측시험으로 나뉘게 된다.

함정 건조 과정과 연계하여 시험평가를 살펴보면 소내시험은 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 실시하는 자체 검증 단계이며 방위장비청 감독관이 입회하여 실시하게 된다[5]. 함정 건조 후 설계 사양을 검증하는 관측시험을 해상공시라고 하며, 조선소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 시작 30일 전까지 방위장비청에 제출 및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다[7]. 해상공시는 조선소가 주관하고 방위장비청이 임명한 감독관(방위장비청, 지방방위국, 해상막료감부 등) 감독 하 실시하게 되며 이상이 없으면 해상자위대로 인도하게 된다. 인도 후 해상자위대에서는 전력화 훈련과 장비인정 시험을 거치고 부대 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함정 시험평가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은 장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개발대군이 기술개발, 연구개발, 시험평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점과 시험 전용함인 아스카함을 운용한다는 점이다.

3. 시험평가주관조직 및 역할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해서는 정부 측의 방위장비청(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 ATLA)과 해상자위대의 개발대군(Maritime warfare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and, MRDC)이 담당하고 있다.

3.1 방위장비청(防衛装備庁)

일본 방위장비청은 이전 각 막료감부(육·해·공)와 기술연구본부, 장비시설본부로 분산되어 있던 장비 획득 관련 업무기능을 통합하여 개념연구, R&D, 생산, 운용, 유지보수, 폐기까지 전 분야를 관리하기 위해 방위성 외청으로 2015년 창설되었다. 방위장비청은 단순히 조달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검증과 시험평가를 프로젝트 관리의 핵심 요소로 통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8]. 일본 방위장비청은 무기체계 획득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6년 개칭한 한국의 방위사업청과 같은 정부 조직이다.

방위장비청은 방위장비청장 예하에 6개 부서를 두고 있다. 청내 내부관리와 인재육성을 하는 장관관방, 장비청 업무 총괄과 장비정책 기획 등을 수행하는 장비정책부, 주요 장비품 구상과 연구개발 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 관리부, 장비품 연구개발 기획과 기술 진흥을 담당하는 기술전략부, 장비품 조달과 품질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달관리부, 장비품 계약 등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사업부가 있다[9]. 이와 더불어 산하 기관으로는 연구소와 시험장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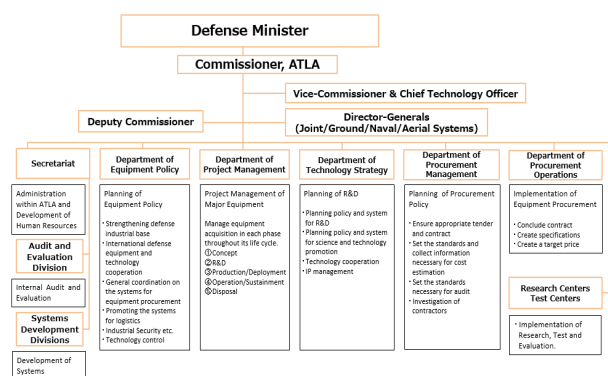


Fig. 1. Organization of the ATLA[9]

방위장비청은 자위대 호위함 시험평가에 대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부서로는 프로젝트 관리부 소속의 함정사업 프로젝트관리관, 기술전략부, 차세대 장비진흥부, 함정장비연구소가 관여하고 있다. 시험장으로는 치토세 시험장, 시모키타 시험장, 카미오카 시험장이 있다.

3.2 해상자위대 개발대군(開発隊群)

일본 해상자위대에는 신무기와 새로운 시스템을 연구하고 시험평가를 시행하는 연구개발부대로 개발대군이 편성되어 있다.

개발대군은 성능 평가 외에도 해상에서의 전술 개발, 소프트웨어 최적화, 신개념 무기체계 기술 개발 등 실제 해상에서의 운용과 관련된 다각적인 업무를 실시한다. 개발대군의 지휘관은 해장보(海將補, 소장급)이며 예하에 3개의 개발대를 두고 있다. 본부는 요코스카에 두고 있으며 예하 각 개발대(開發隊)의 임무는 Table 2와 같다[10]. 이 부대 중 기술평가 개발대에는 호위함에 탑재하는 장비를 해상에서 전문적으로 시험평가하는 시험함 아스카(AOE 6102)가 편성되어 있다.

Table 2. Mission of the MRDC

Category	Mission
Maritime System Development Unit	-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defense equipment and systems - Capability enhancement and upgrading of equipment - Development,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training systems - Conducting related surveys and research
Air Program Development Unit	- Development, improvement, and management of software for aircraft combat systems and related systems - Research on advanced technologies for aviation - Training, surveys, and research activities
Ship-based Development and Evaluation Unit	- Evaluation of equipment for procurement and acquisition - Practical trials and performance trials for developmental items - Improvement and modification of current in-service equipment -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experimental ship JS Asuka
JS Asuka (ASE-6102)	- Conducting technical trials and practical trials for developmental prototypes - Performance trials for newly developed or procured equipment

2023년 부대 개편을 통해 현재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개발대군은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 함상 레일건, 무인 잠수정(UUV), 무인 수상정(USV) 등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 과정에서 개발대군이 참여한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해상자위대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구체화하고 시험함 아스카에

신규 개발장비를 탑재하여 성능 검증을 한 후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사에 수정 설계를 요청하고 전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모가미급 호위함은 약 90명의 승조원으로 운영하는 모듈형 장비 탑재 다목적 호위함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3.3 해상자위대 시험함 아스카(AOE 6102)

일본 해상자위대의 시험함 아스카는 개발대군 기술평가 개발대 소속으로 요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 아스카함은 일반적인 호위함과는 다르게 탑재 장비품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해 건조되었으며, 해상자위대, 방위장비청 연구원, 장비 제조사의 기술자들이 함께 탑승하여 각종 시험을 진행한다.

Fig. 2와 같이 아스카함은 전장 151 m, 전폭 17.3 m, 흘수 5.0m이고 만재 배수량은 약 6,200 톤이며, 최대 27 노트의 속력을 낼 수 있는 COGAG 추진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장비를 교체하여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신형 레이더, 소나, 미사일 발사 시스템 등 다양한 무기와 장비를 해상에서 테스트하였으며, 최근에는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통합 소나시스템, 레일건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Fig. 2. Configuration of JMSDF Asuka

한국의 경우, 함정 탑재무기체계의 개발은 함정사업과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신형 함정사업과 연계해서 개발을 진행한다. 따라서 함정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개별 무기체계의 개발이 늦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일본은 아스카 함이라는 시험 전용함을 통해 신조함 건조사업과 별개로 새로운 장

비를 개발하고 해상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장비를 실제 해상 및 함정 탑재 환경에서 조기에 개발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호위함 건조에서 획득기간, 특히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4. 효율적인 함정 획득을 위한 시사점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 호위함 건조 및 시험평가 관련사항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무기체계 또는 함정 획득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도출하였다.

4.1 획득기간 단축을 위한 탄력적 사업 진행

일본은 동일 클래스의 함정을 다수 건조한 경우가 적다. 그러나 단기간 내에 다수 함정을 전력화하기 위해 선도함부터 복수의 조선소에 동시에 발주한 것은 가장 괄목할 만한 점이다. 모가미급 호위함 건조 사업에서 획득기간 단축을 위해 1번함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2번함은 미쓰이 중공업에 동시에 발주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2번함은 동시에 다른 중공업에서 상설설계 및 건조가 되므로 사실상 1번함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선도함을 먼저 설계·건조하여 시험평가를 통과한 후, 다시 경쟁을 거쳐 후속함을 순차적으로 발주하는 한국의 획득 방식과 대비된다. 한국 해군도 신속한 전력 확보가 필요한 함정 사업이거나, 수출이나 전시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방산조선소들의 역량을 골고루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갖춘 다른 조선소에 선도함을 포함하여 물량을 동시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 전용 시험함 운용 및 전문 기술인력 유지

육상에서의 시험과 해상에서 함정에 탑재 후 시험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유동적인 해상 조건에서부터 제한된 함정 공간, 기타 장비들과의 연동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육상에서 성능을 만족한 개발장비가 해상 시험평가에서 탈락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한국은 주로 신규 개발장비의 착수 일정을 차기 함정 건조사업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 개

발이나 기존 무기체계의 개량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일본은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전용함과 개발대군이라는 전문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신형 함정 건조 사업 일정과는 별개로 함정 탑재환경에서 시험평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독립적인 평가 환경은 신규 장비의 사전 함상 검증을 가능하게 하여, 실제 호위함 건조 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 기간 지연을 방지한다. 한국도 실제 함상 환경 기반의 사전 성능 검증이 가능하도록, 전용 시험함 확보를 통한 인프라 보완이 시급하다. 개발대군과 같은 전문 기술조직은 한국도 유사한 조직이 있으나, 규모와 인력구성 및 자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논외로 한다.

5. 결론

최신 기술이 반영된 함정을 적기에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이다. 본 연구는 해군력과 조선 산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해상자위대의 호위함 건조와 시험평가 제도, 조직 및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해군을 위한 두 가지 정책적 보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함정 획득 기간 단축을 위해 복수 조선소를 활용한 탄력적인 동시 건조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은 선도함과 후속함을 동시 발주하여 전력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한국도 신속한 전력 확보를 위해 복수 업체에 건조 물량을 분배하여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부가적으로 전시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신규 장비의 신뢰성 검증과 획득 지연 방지를 위해 전용 시험함 및 전문 평가 조직 체계화가 요구된

다. 일본의 아스카함과 개발대군 운용 사례처럼, 신조함에 탑재될 주요 장비를 함정 건조 이전에 실제 함상 환경에서 장비 성능을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첨단 장비가 통합되는 함정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유연한 획득 절차 도입과 전문적이고 충분한 연구 및 시험 기반이 마련된 독립적 체계 구축, 그리고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해군 전력 증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防衛省, '防衛関係費 ~防衛力抜本的強化「元年」予算~(방위관계비 ~방위력 발본적 강화 원년 예산~)', 防衛白書, 2023, pp. 237-241.
- [2] 防衛省, 防衛力整備計画(방위력 정비계획), 2022.
- [3] 防衛省, 装備品等の研究開発に関する訓令(장비품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훈령), 2015.
- [4] 柏谷 達男·吉岡 勇治郎·佐藤 晴彦, '16DDHに見る自衛艦の研究開発プロセス(16DDH를 통해 바라본 자위함 연구개발 프로세스)', 世界の艦船, 2007.05, pp. 75-83.
- [5] 海上自衛隊, 海上自衛隊における研究開発に関する達(해상자위대의 연구개발에 관한 지침), 1974(2023년 개정).
- [6] 防衛省, 船舶の造修等に関する訓令(선박 조수 등에 관한 훈령), 1957(2025년 개정).
- [7] 防衛装備庁調達事業部長, 海上公試予定表について(通知)(해상공시에정표에 대한 통지), 2018.
- [8] 防衛省, '防衛装備庁の新設(방위장비청 신설)', 防衛白書, 2016.
- [9] 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 Organizations. <https://www.mod.go.jp/atla/en/soshiki.html> (accessed 2026.03.16.)
- [10] Maritime Warfare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and, About MRDC. <https://www.mod.go.jp/msdf/frdc/> (accessed 2026.03.16.)